

# 한국전쟁 70년: 한국기독교회 평화 호소문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 34:14)

## 시작하며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시작은 있었지만 아직도 종전을 확인하지 못한 채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 대결과 증오의 70년 역사는 정치·경제 제도와 사회·문화 질서는 물론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측면에 깊은 상처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전쟁과 분단 질서의 포로가 되어 지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한반도에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대결과 증오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끝내고 분단질서를 극복해야 하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노력은 단순히 지정학적 국제 질서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는 남과 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온전한 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개인, 모든 공동체가 전쟁과 분단이 가져다 준 억압적 가치와 질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며, 전쟁과 학살, 대결과 증오의 기억을 넘어서 화해와 용서의 눈으로 서로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전쟁과 분단의 질서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는 일이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양보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들 사이, 그리고 남북 사이에 다시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어 평화를 향한 행보가 흔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힘이 어디로 흘러가든 화해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70년 전으로 돌아가 서로를 향해서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우리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이에 우리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교인들, 전쟁과 분단의 과정에 참여한 나라들, 남과 북의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의 화해와 평화에 대한 신념을 전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종식선언과 평화질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성별과 인종, 지역과 국가를 넘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정부를 향한 호소

먼저 남과 북의 정부에게 평화를 향한 우리의 신념을 전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양쪽의 노력은 결코 멈출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2018년 9월 19일의 이 약속은 이제 온 겨레의 가슴 속에 결코 물러 설 수 없는 출발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과 북의 약속의 실현을 가로막는 국제적 이해관계들이 현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000년 6월 15일의 약속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힘을 모아 민족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통로와 공간을 더 넓게 열어가겠다는 다짐이었고,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과 평양에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상호나눔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분단질서의 극복과 화해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남북의 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적 질서와 압력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민족 간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통로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평화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 양쪽이 대결과 정복을 위한 경쟁자가 아니라, 평화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만들어 온 적대적 장치와 제도들이 남과 북의 상호인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일거에 없애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증오와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노력입니다. 최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이후 어떠한 추가조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무력적 대응행동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남과 북은 냉온탕을 오가며 끊임없는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번의 위기도 남과 북의 자주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동맹국(참전국)들을 향한 호소

70년 전에 시작된 전쟁에 남북 양쪽의 동맹국으로 참전한 참전국들과 그 이후의 분단질서의 이해 당사국들에 간절한 우리의 호소를 전합니다. 한반도가 다시는 국제적 패권 경쟁의 대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전국의 군인들을 포함해서 수백만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한반도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처참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던 그 참혹한 폭력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동맹은 국제적 패권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한반도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참전국과 남북의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정부와 시민들이 국제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대화하며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평화의 연대로 변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잔인함과 폭력성은 특정한 개인들이나 집단들을 비인간으로 낙인찍어 제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없애도 되는 생명, 죽여도 되는 생명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증오하고 낙인찍는 과정은 자주 그리고 쉽게 없애도 좋을 생명, 죽여도 좋을 생명을 만들어 냅니다. 증오와 폭력의 가능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 그 어느 쪽을 향해서도 낙인찍기와 증오의 틀을 덧씌우는 냉전의 관행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남과 북 그 어디에도, 없애도 좋을 생명과 집단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화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확한 반대를 표합니다. 남북의 전쟁 동맹국들이 70년을 전쟁 상태에 있는 이 야만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평화의 연대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세계교회를 향한 호소

70년 전에 발발한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도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는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수많은 교회와 함께 해 온 기도와 연대의 실천이 화해와 평화를 향해 일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큰 도움이고 위로였음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연대는 전염병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세계를 위해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기나 앞으로 닥쳐올 다른 재난들은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창조세계 사이의 오랜 분열과 갈등이 불러온

결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서가 전하는 화해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분열과 혐오와 증오를 확대해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상황은 상호의존성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더 이상 고립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아가 사람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독점과 사유화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독점과 사유화를 향한 야만적 패권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패권적 기도들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의 지경을 넘어서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시장의 상품가치가 아닌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선교적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끝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새로운 평화질서가 열릴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보다 깊은 일치의 연대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한국교회를 향한 호소

아직도 종전이 아니라 휴전상태에서 전쟁 70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을 통해, 바로 우리 교회가 전쟁과 분단, 적대와 증오의 당사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적대의 질서를 만들고 지속시켜 온 당사자임을 죄책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한국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평화통일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이 죄책 고백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전쟁과 분단은 남북이 물리적으로 대결하는 전선이나 국경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법적 선악논리, 반공주의, 군사주의적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독재정권과 지배층이 세력을 키우고 민중을 억압하며 가부장제를 강화해 성적차별과 착취를 일상화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분단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는 사회적 원한과 증오, 적대와 갈등의 유발자나 생산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갈등의 치유자와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결의 주체가 아니라 자기희생의 화해자가 되겠다는 약속이며, 분단질서의 포로가 아니라 평화질서의 개척자가 되기 위한 깊은 회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화와 화해의 길로 충분히 돌아서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정죄하고 혐오할 대상을 찾고, 그렇게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배제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화해, 평화, 용서에 깊이 뿌리 내린 새로운 신자와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과 통일은 하나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일은 한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는 일, 곧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로 초대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연대와 상생의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폭력의 가능성을 없애고, 평화의 길을 새로 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 성서적 근거

성서는 수난 당하시는 하나님의 화해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인간의 교

만과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창조세계 사이의 모든 관계가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서가 화해와 용서에 대한 하나님 주도성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깨어짐과 회복을 반복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우며, 스스로 화해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해자이고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화해와 평화의 길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죄에 대한 이해를 따르면,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며, 결코 가해자의 죄가 피해자의 죄보다 크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화해의 과정 속에 참여하는 모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해자도 변화되어야 하고 피해자도 변화되어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해는 한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화해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회심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끊임없는 관계의 갱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겸손한 화해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평화의 힘과 분열과 대결의 힘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각축하는 이 한반도에서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연대로 모일 수 있게 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다짐

전쟁 상태로 70년을 이어온 분단과 냉전의 세월은 화해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반역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수백만의 희생과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아픔을 더하게 했던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평화와 화해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국내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 한반도에서 모든 전쟁행위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남북 간의 군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현재의 전쟁상태에 대해 조속히 종전이 선언되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온전히 정착시킬 초석이 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특히 북미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고 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 남과 북은 국제 사회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 교류와 협력을 위한 공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닌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양보하게 만드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민족으로서 자주적으로 평화와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 한국 교회가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평화와 화해의 일꾼이 되도록 함께 연대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 세계교회와 국내외의 종교시민사회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여성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화해·통일위원회